

2022년 ‘해외 중국관광문화주간’ 성황리에 진행

“중국을 여행할 기회가 있다면 꼭 가고 싶어요. 중국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중국이 전 세계의 무형문화유산 보존과 농촌 발전에 계속하여 지혜를 나누기를 기대합니다.”, “오래된 고요한 대나무 숲은 마치 한 폭의 중국화처럼 아름다워요.”, “중국의 고속열차는 정말 멋집니다!” 2022년 ‘해외 중국관광문화주간’이 성황리에 마무리된 가운데, 해외 중국문화센터와 관광사무소에는 많은 외국인으로부터 열정적인 메시지를 쇄도하고 있다.

올해 9월부터 10월까지 문화관광부의 주도로 2022년 ‘해외 중국관광문화주간’이 전 세계적으로 연계하여 개최되었다. 56개 해외 중국문화센터와 관광사무소는 현지인을 대상으로 테마 전시, 비디오 상영, 세미나 교류 등 온라인 및 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하여, 중국의 우수한 전통문화 보존과 전승, 문화·관광을 통한 빈곤 극복과 농촌 활성화, 당대 중국의 창조적 발전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건설의 위대한 성과를 풍부하게 전시했다.

‘해외 중국관광문화주간’ 동안, 해외 중국문화센터와 관광사무소들은 국제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식과 방법을 창조하여, 중국 이야기를 다양한 채널과 생동감 있는 사례를 통해 전달하고, 그 속에 담긴 중국의 경험, 지혜, 해결책을 전시하여 많은 외국인의 관심을 끌었다.

로마 주재 중국관광사무소는 이탈리아·중국 문화교류발전센터 등과 함께 관객이 직접 참여하는 ‘나의 중국 이야기’라는 행사를 기획했다. 이 행사는 중국에서 생활하고 여행 경험이 있는 이탈리아 시민 중 10명의 무술 강사, 청년 시인, 유명

밴드, 여행사 등 다양한 직종의 참가자들이 짧은 동영상 형식으로 중국에서의 일과 생활, 여행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믿을 수 있고 사랑스럽고 존경스러운 중국의 이미지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밝은 달은 언제부터 저 하늘에 있었을까? 술잔 들고 하늘에 물어보네. 천상 궁궐에서는 모르리, 오늘 저녁이 어느 해인지.” 은은한 노랫소리는 카이로 중국문화센터에서 열린 “바다 위의 밝은 달 붉은 여정” 시가 축제를 절정으로 끌어올렸다. 카이로 중국문화센터에서 선보인 2022년 ‘해외 중국관광문화주간’ 관련 동영상은 이 센터 멀티미디어 플랫폼에서 5만여 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했으며, 20만 명이 넘게 시청했다.

방콕 중국문화센터와 방콕 주재 중국관광사무소는 주로 페이스북을 활용하여, 쓰촨(四川)성 ‘타이아이 쓰촨ka(태국은 쓰촨을 사랑합니다.)’ 프로젝트와 연계해 ‘도시 건설’, ‘농촌 활성화’, ‘무형문화유산을 통한 빈곤 퇴치’, ‘황허(黄河) 문화’, ‘실크로드 문화관광’ 등 주제의 디지털 자원을 온라인으로 홍보하였는데, 누적 시청자가 30만 명 이상, 리트윗 횟수가 4만 3,000건에 달했다.

베를린 중국문화센터는 농촌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 ‘농촌 활성화가 가져다 준 행복한 삶’이라는 주제의 문화 모임 행사를 개최하여, 단편 영화 상영 및 특강 등의 형식으로 독일 국민에게 ‘푸른 자연이 곧 중요한 자원[綠水青山就是金山銀山]’이라는 이념과 최근 몇 년간 중국이 전면 시행한 농촌 활성화 전략,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농촌 관광을 적극 발전시키는 생생한 실천 사례, 중국 방안과 경험을 공유했다.

싱가포르 중국문화센터와 싱가포르 주재 중국관광사무소가 공동으로 개최한 ‘중국 농촌 활성화와 도시 건설 이야기’ 공유회에 참석한 싱가포르 시민들은 중국이 빈곤 극복 과정에서 이룬 주요 성과에 대해 더욱 깊은 이해를 갖게 되었고, 코로나 이후 양국 간 문화 교류와 관광 교류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흥미로운 온라인 및 오프라인 문화·관광 행사는 중국의 신뢰할 수 있고, 사랑스

럽고, 존경스러운 이미지를 다각도로, 입체적으로 보여주어, 외국인들 사이에서 뜨거운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모두 중국에 직접 가서 중국의 유구한 역사, 찬란한 문화, 웅장하고 아름다운 산천, 다양한 풍토와 인심을 경험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